

# 해외당뇨소식

## 비타민D 결핍 아이, 당뇨병 잘 걸려

비타민D가 결핍된 아이들은 제 1형 당뇨병인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에 있는 아동보건 연구소의 엘리나 히포넨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핀란드 북부지방 2개 도시의 주민 10,821명을 대상으로 출생이후 30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히포넨 박사는 이들 중 출생 후 첫 1년 동안 비타민D 보충제를 투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후 30년 사이에 제 1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8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1형 당뇨병은 면역세포가 췌장의 인슐린 생산세포를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비타민D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히포넨 박사는 비타민D가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섬세포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히포넨 박사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D는 90% 이상이 피부의 태양노출에 의해 생산된다고 말하고 핀란드 아이들은 남반구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 햇빛 노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한다고 밝혔다. 히포넨 박사는 제 1형 당뇨병은 최근 몇년 동안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태양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밖에 잘 내보내려 하지 않고 또 자외선 차단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비타민D 보충제

를 복용시키거나 일주일에 3번 15분씩 얼굴과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히포넨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비타민D 보충제는 고단위로 복용하면 독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과음, 남성에서 당뇨 위험 증가시켜

'미국 역학저널' 지에 실린 한 보고에 따르면 죽상경화증에 관한 연구에서 과음을 하는, 특히 독주를 마시는 남성들은 비음주자들 또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음주를 하는 남성들에 비해 중년기에 제 2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82%나 더 높다고 한다. 반대로 여성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알코올 섭취에서도 당뇨병 발생위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 홉킨스 의료기관의 브란카티 박사와 다국적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12,261명의 중년남성과 여성들에서 알코올 섭취와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위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각 기저평가 후 3~6년 동안 경과 관찰을 받았다.

혼동이 될 만한 요소들과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 상당한 양(일주일에 21회 이상의 음주)의 음주를 하는 중년남성들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제 2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50% 가량 더 높았다.

일주일에 독주를 14회 이상 마신다고 보고된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독주, 맥주 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현재 음주자들보다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82%나 높았다. 중등도량의 음주는

# 해외당뇨소식

남성들에서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않았고, 여성들에서는 음주와 당뇨병의 발생위험의 증가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발견되지 않았다.

브란카티 박사 등은 “우리의 연구결과가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더불어 제 2형 당뇨병의 예방을 위한 전략인 중등도의 알코올 섭취를 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일주일에 독주를 14회 이상 마시는 남성들은 당뇨병 발병도의 증가가 과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라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제 3단계 임상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임상실험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셋’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중태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하면 생존률 높아져

중태에 빠진 당뇨병 환자가 중환자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곧바로 인슐린을 써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낮출 경우 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벨기에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날 발간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 연구팀은 “혈당수치를 조절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신장부전을 나타내거나 감염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수혈도 적게 받았고 중환자실에 머무는 기간도 짧았다”고 밝혔다.

루벤가톨릭대학 연구팀은 혈당수치가 정상수치인 110mg/dl을 넘자마자 인슐린을 바로 투여해 혈당수치를 다시 정상으로 만든 환자들과, 혈당수치가 215mg/dl이 되어야 인슐린을 투여하고 혈당수치를 180~200mg/dl 정도에서 유지되게 만든 환자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전자처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자 같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은 32%, 혈류감염은 46%, 신장부전은 41%가 감소했고, 수혈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 당뇨병 예방 - 치료백신 개발,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제 1형 당뇨병인 연소성 당뇨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지(紙)가 보도했다.

이 백신은 하다사 당뇨병 센터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실험에서 증세가 완화되고, 인슐린 생산 세포의 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200명의 환자가 이 백신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또 현재는 건강이 정상이지만 유전적으로 제 1형 당뇨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주사한 결과 당뇨병 발병이 억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의 펩토르 제약회사가 이 백신 특허사용권을 사들였으며 오는 2004년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